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20호

Jeff Pippenger

2025-12-26

이십

요엘서는 하나님의 포도원이 네 번째 세대에 파괴된다고 밝힌다.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을 들으라, 너희 노인들아. 땅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너희의 날에 있었느냐, 혹 너희 조상들의 날에도 있었느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라. 너희 자녀가 그들의 자녀에게 말하게 하며, 그 자녀가 또 다른 세대에게 말하게 하라.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깨어라, 너희 술 취한 자들아,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자들아, 새 포도주로 인하여 울부짖어라; 이는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요엘 1:1-5.

열 처녀의 비유는 재림주의의 비유이며, 그 비유에서의 깨어남은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될 때 일어난다. 그때 가라지는 자신들이 '새 포도주'로부터 '끊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끊어졌다'는 말은 피로 언약을 확증하기 위한 의식에서 암송아지와 암염소와 숫양이 둘로 쪼개졌던, 아브람의 첫 언약 단계를 가리킨다. 바로 그 동일한 언약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넷째 세대에 심판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실 것을 밝히신다.

그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알라. 네 자손은 자기들의 것이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며, 그들은 네 자손을 사백 년 동안 학대하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좋은 노년에 장사될 것이다. 그러나 사대가 지나면 그들이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세기 15:13-16.

예언이 네 번째 세대, 곧 모세의 세대에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그분이 택하신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 십계명을 주셨다. 그 십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에서 아브람의 사대의 빛이 더욱 크게 드러났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악을 그 자녀들에게 삼사 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수천 명에게는 자비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4-6.

아브람의 언약의 네 대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부각시키는 맥락 속에 포함되었다. 그분의 질투는 새긴 형상과 대조된다. 아브람의 네 대째와 관련하여 우리는 점진적인 심판도 보게 된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 종살이하던 나라 위에도, 하나님의 백성 위에도 임했으며, 그 후에는 아모리 족속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 아브람은 심판의 과정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여 세상으로 점차 나아가는 점진적 과정임을 밝히고, 둘째 계명은 그 심판 과정이 인류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부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류로 나눈다고 밝힌다. 이로써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외치는 주일법을 예표한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던 같은 시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네가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돌판들 위에 쓰리라. 아침에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으로 올라와 그 산 꼭대기에서 내 앞에 서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온 산 어디에서도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며, 양 떼나 소 떼도 그 산 앞에서 풀을 먹지 못하게 하라.

그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아 만들었고,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시나이 산에 올라가며 손에 그 두 돌판을 들었다.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거기서 그와 함께 서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며, 천 대까지 인자를 베푸시고, 죄악과 허물과 죄를 사하시되, 죄 있는 자를 결코 무죄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들의 죄악을 자녀들에게와 자녀의 자녀들에게, 곧 삼 대와 사 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모세가 급히 땅을 향하여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 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주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로 가시옵소서. 이는 이 백성이 목이 굳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출애굽기 34:1-9.

율법의 두 번째 수여는 1850년 개척자 도표와 일치한다. 처음 돌판은 깨졌고, 첫 번째 도표에는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 그 뒤로 고대 이스라엘은 율법의 보관자가 되었고, 현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법들의 보관자가 되었다. 두 돌판이 처음 제시되었을 때 진영 안에는 실제적인 반역이 있었고, 1850년 도표가 제시되었을 때에는 진영 안에 영적 반역이 싹트고 있었다. 아브람의 사 대에 관한 예언은 모세를 통해 사 대에 성취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둘째 계명에서 사 대에 대한 심판의 계시를 확장하셨다. 새긴 우상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의 모조품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의 질투하심이 그 심판에 결부되었다. 그 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의 한 요소로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보았고, 예배자와 그들의 조상들의 죄 사이의 관계가 제시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의 집을 위한 열심이 그분을 삼켜 버렸다는 것을 기억했다. '열심'이라는 말은 '질투'를 뜻한다. 그분의 질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신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도록 이끈

동기이며, 너희 조상들의 그 죄들을 자백해야 한다는 예언적 속성은 훗날 레위기 26장의 '일곱 번' 심판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아브람의 '네 번째 세대'는 언약의 역사를 거쳐 가면서 점점 더 큰 비중을 갖게 된다. 요엘서는 말세에 일어나는 늦은 비의 때를 나타낸다. 요엘서는 네 세대의 메시지를 소개하며, 그것을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의 세 부분으로 된 언약의 맨 첫 단계에서 기록된 주제로 삼아 자신의 메시지를 전개한다. 그 주제는 요엘서에서 결론에 이른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 언약계는 신로에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악하고 어리석은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부패한 두 아들이 사무엘의 부르심과 대조된다. 신로는 언약의 상징인 언약계의 여정에서 하나의 경유지가 되었다. 언약계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상징으로 사용된 뒤, 엘리와 그의 악한 아들들이 죽을 때까지 약 사백 년 동안 신로에 있었다. 그 후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이어 다윗이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예루살렘으로의 개선 입성의 첫 예가 이루어졌다. 언약의 상징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명시된 목적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며,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질투와 연관되고, 그 질투는 네 번째 세대에 내리시는 질투의 심판과 연결된다.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 주께서 승리의 교회를 모든 산과 언덕 위로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며, 이방인들은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라고 말할 것이다.

마지막 날들에 여호와의 집이 있는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언덕들보다 높이 들릴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흘러오리라.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라. 이는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이사야 2:2, 3.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간다. 이는 그분이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모세와 함께하실 때,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거기서 그와 함께 서시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심과 진리로 풍성하시며,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인애를 지키시고, 죄악과 허물과 죄를 사하시되, 죄 있는 자를 결코 무죄하다 하지 아니하시며, 조상들의 죄악을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에게, 삼대와 사대에 이르기까지 갚으신다. 출애굽기 34:6, 7.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품성이며, 하나님의 품성은 심오하게 복잡하면서도 심오하게 단순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그분의 품성을 완전하게, 그러나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다. 아브람의 언약에 담긴 '네 번째 세대의 심판'이라는 진리는, 둘째 계명이 네 번째 세대에 비추는 추가적인 빛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확장되었다. 그런 다음 모세의 경험은 그분의 질투라는 빛을 더함으로써, 네 번째 세대와 하나님의 품성의 연관성에 관한 빛을 확장한다. 영감은 품성을 '생각과 감정의 결합'으로 정의했지만, 또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다고 알려 준다. 그분의 품성은 그분의 생각과 감정의 결합이며, 그분의 품성은 우리의 단순한 인간적 생각과 감정을 훨씬 넘어서는 수많은 측면을 지니고 있어서, 그 차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분의 생각이 더

높다는 데 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같지 않으며, 너희의 길도 내 길과 같지 않다 —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더 높다. 이사야 55장 8, 9절.

그러니 곰곰이 생각해 볼 '인간의 생각'이 하나 있다. 만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모든 현현은 곧 그분의 성품의 현현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시고 또 봉인을 푸시며, 팔모니는 비밀들을 기묘하게 헤아리시는 분이시고, 또한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시며, 불타는 떨기나무, 불기둥, 대천사 미가엘 등으로 나타나신다. 그분의 여러 이름이 보여 주는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들은 끝이 없다. '곰곰이 생각해 볼 인간의 생각'은 이것이다.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성품의 온갖 표현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브람과의 삼중 언약 과정에서 맨 첫 번째 언약 단계에서, 그분의 이름을 반영하는 언약의 기초적 선언이 바로 '네 번째 세대의 심판'이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알라. 네 자손은 자기들의 것이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며, 그들은 네 자손을 사백 년 동안 학대하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좋은 노년에 장사될 것이다. 그러나 사대가 지나면 그들이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세기 15:13-16.

사람들과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들에게 네 세대로 상징되는 유예 기간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며,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사람들과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넷째 세대에 결론지으신다. 하나님께서 선민과 맺으신 언약의 기초적 선언에는 넷째 세대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천사의 메시지가 세 천사 각각의 메시지의 모든 특성을 지니고 있듯이, 아브람의 언약의 첫 단계 또한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언약 전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이 자비로운 심판자이시며, 넷째 세대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선민의 언약 역사 속의 다른 모든 단계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다.

요엘서를 5절의 한밤중 외침의 각성에 놓고, '새 포도주'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질' 때, 선택된 언약 백성의 그 최종적 언약 분리를 소개하는 도입은, 곧 그 후 '끊어지게' 될 언약 백성의 반역이 넷째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시하는 언약의 근본 메시지이다. 그들은 언약의 근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어지게 된다'.

창세기 15장의 네 절에 담긴 그 언약의 기초적 메시지는, 말세에 언약의 정점 메시지가 "새 포도주"로 제시될 때 사용되는 측량 막대—심판의 기준선이다. "새 포도주"가 "끊어질" 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깨어남과 연관된 그 엄중함은, 늦은 비의 시험 기간 동안 반역하는 선택받은 백성의 마지막 네 번째 세대에 대한 심판 선포라는 맥락 속에 놓일 때에만 비로소 제대로 이해된다.

창세기 17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의 세 단계 언약 중 둘째 단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와 네 뒤의 후손들은 대대로 내 언약을 지킬지니라. 너희가 지켜야 할 내 언약은 곧 나와 너와 네 뒤의 후손 사이의 것이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에 할례를 행할 것이니,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 중 태어난 지 여드레 된 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하며, 너희 대대로, 집에서 태어난 자든, 너희의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 모두 그러하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자와 너희 돈으로 산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니,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만일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의 남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내 언약을 어겼다. 창세기 17:9-14.

둘째 단계는 '끊어짐'이라는 상징을 확인해 주는 두 번째 증언을 제시한다. '끊어지다'로 번역되는 그 단어의 어원은 15장에서 아브람이 짐승들을 둘로 쪼갰 사건에서 찾을 수 있으며,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언약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본문에서도 쓰인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진리들을 확증하신 언약사의 맥락에서 할례는 세례로 대체되었고, 이런 이유로 우리의 본이 되신 그분은 여덟째 날에 부활하셨다.

그 표징은 방주에 있던 여덟 사람으로 상징되듯, 여덟째 날에 행해지도록 되어 있었다. 둘째 단계에서는 시각적 시험이 나타난다. 엘리야가 집행한 심판에 앞서 이스라엘이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사이에서 선택했든지, 혹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얼굴빛이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 보였든지, 둘째 시험은 시각적이다. 할례는 생명의 표징이며, 방주에 있던 여덟 사람은 죽은 자들과 대조되는 살아남은 자들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언약의 표징이 세례로 전환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언약사의 대전환을 보여주기 위해 이 구절들이 담고 있는 바로 그 언약사를 활용했다. 그는 할례에서 잘려 나가는 육체를 신성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또 인간의 상위 본성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하위 본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활용하여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의 이름 사울이 의미하듯 "선택된 자"로서의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문자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의 전환이 표상하는 언약사의 대전환을 식별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예언적 메시지를 언약사의 맥락에서 제시했다.

창세기 17장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에게서 오메가적 성취를 이루는 세 가지 기초적 언약의 단계 가운데 둘째 단계를 나타낸다. 둘째 단계는 할례의 표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4만 4천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인을 예표한다. 14만 4천은 깃발이며, 그 깃발은 시각적 시험을 나타낸다. 그 세 천사는 아브라함의 알파 언약의 오메가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셋째 단계는 22장이었다.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네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반드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네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창세기 22:15-18.

이 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이는 세 번째 언약 선포에 앞서 최종 시험을 밝히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자, 아브라함의 삼중 언약의 마지막 네 구절이 제시되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음성”인 하나님의 음성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서 복을 받게 되었다. 셋째 천사는 하나의 시험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성품을 드러내는 시험을 대표하며, 성품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근거한다.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에 합격한 자들은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모으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이다. 세 장에 걸친 열일곱 구절은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 사이의 언약을 밝히며, 그렇게 함으로써 선택된 백성의 언약 역사의 알파를 대표한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구절들은 십사만 사천 명을 일으키심으로 나타나는 언약 역사의 오메가도 대표한다.

우리 가운데 집이나 차량을 계약 조건을 먼저 검토하지 않고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계약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대(四代)에 심판을 행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비극은 그들이 밀러주의 역사의 근본 진리들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공언하는 언약 관계의 근본 진리들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들은 옛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시는 때를 알지 못한다. 9/11에 시작된 그 방문의 기간의 결말은, 그들이 한밤중에 깨어나 그제서야 자신들이 끊어졌음을 깨닫는 때이다.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4월 18일, 무너지는 건물들을 목격한 지 이틀 뒤, 나는 로스앤젤레스의 카 스트리트 교회에서의 약속을 지키러 갔다. 교회에 가까이 다가가자 우리는 신문팔이 소년들이 “샌프란시스코가 지진으로 파괴됐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그 끔찍한 재난에 대한 급히 인쇄된 첫 소식을 읽었다.

두 주 뒤, 귀향길에 우리는 샌프란시스코를 지나며 마차를 빌려 그 거대한 도시에서 벌어진 파괴의 참상을 한 시간 반 동안 둘러보았다. 재난에도 끄떡없을 것이라 여겨졌던 건물들마저 폐허로 변해 있었다. 곳곳에서는 건물들이 부분적으로 땅속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 도시는 불과 지진에 견디는 구조물을 설계하고 세우려는 인간의 기지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지극히 참혹한 광경을 보여 주고 있었다.

그의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 주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구체적으로 밝히신다: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리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멸하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악인들과 함께 있는 걸림돌들을 멸하며, 내가 이 땅에서 사람을 끊어 버리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주님의 제사의 날에 내가 고관들과 왕의 자녀들, 그리고 낫선 복장을 한 모든 자들을 벌할 것이다. 같은 날에 또한 내가 문지방을 뛰어넘는 모든 자들, 곧 자기 주인들의 집을 폭력과 속임수로 가득 채우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 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 자기 찌꺼기 위에 안주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선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악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벌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의 재물은 노략물이 되고, 그들의 집들은 황폐하게 되리라. 그들이 집을 지어도 거주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심히 속히 오나니, 곧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그 날은 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허의 날이요, 어두움과 캄캄함의 날이요,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견고한 성읍들과 높은 망대를 향한 나팔과 경보의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내리리니 그들이 맹인같이 다니리라.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피는 티끌같이 쏟아지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리라. 그들의 은이나 금이라도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하리니, 오직 그의 질투의 불이 온 땅을 삼키리라. 이는 그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속히 멸절할 것임이라.' 스바냐 1:2, 3, 8-18.

하나님께서서는 더 오래 참고만 계실 수 없다. 이미 그분의 심판이 일부 지역에 임하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그분의 분명한 노여움이 다른 지역에서도 느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상황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진리는 명확하고 분명한 언어로 선포될 것이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성령의 주권적 인도하심 아래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 복음은 그 순수함 그대로 전해져야 한다. 생수의 강물은 흐르면서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다. 가까운 곳과 먼 곳, 모든 분야에서 밭을 갈던 이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주로 사로잡아 온 더 혼한 상업과 사업 직종에 종사하던 이들이 부르심을 받아, 경험 있는 이들과 함께하며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효과적으로 사역하는 법을 배움에 따라 그들은 권능 있게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난관의 산들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땅에 사는 이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지닌 그 메시지가 들려지고 이해될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일은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온 세상이 경고를 받을 때까지 나아갈 것이며, 그리한 후에 끝이 올 것이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해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불과 홍수와 지진으로 그분은 이 땅의 주민들에게 자신이 가까이 오심을 경고하고 계신다. 세계 역사에서 거대한 위기의 때가 도래하려 하고 있으며, 그때에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움직임이 지대한 관심과 말로 다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주목될 것이다. 잇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질 것이다—불과 홍수와 지진, 그리고 전쟁과 유혈 사태로.

오,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고하심의 때를 알기만 한다면! 아직 이 때를 위한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듣지 못한 이들이 많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절히 씨름하고 계신 이들이 많다. 하나님께서 파멸의 심판을 내리시는 때는, 무엇이 진리인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에게는 자비의 때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자애롭게 굽어보실 것이다. 그의 자비의 마음은 감동되었고, 구원하시려는 그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다. 한편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문이 닫혀 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의 오래 참음에서 드러난다. 그분은 경고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기를 기다리시며, 그분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 오, 우리 백성이 세상에 마지막 자비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자신들에게 놓여 있음을 마땅히 느낀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증언, 9권, 94-97쪽.